

린사이지(팸플릿)

<표지 1>

하쿠산 계잔부쓰 하쿠산에서 내려온 불상

린사이지

<양면 지도/일러스트>

계잔부쓰는 원래 하쿠산의 다음과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1. 목조 다이초 대사 좌상(1611 년)
2. 목조 석가여래상(8 세기)
3. 목조 약사여래 좌상(1712 년)
4. 동조 성관세음보살 좌상(1822 년)
5. 동조 십일면 관세음보살 좌상(1824 년)
6. 동조 아미타여래 좌상(1822 년)
7. 동조 십일면 관세음보살 입상(11 세기)
8. 동조 지장보살 좌상(1183 년)

<안쪽 페이지>

린사이지와 계잔부쓰

린사이지는 하쿠산 산기슭에 있는 너도밤나무 원생림 안에 있습니다. 본당 내진(본존 등을 안치해둔 곳) 은 노토 반도의 검은 와지마누리 칠기로 덮여 있으며, 순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불거리는 별실에 늘어서 있는 8 개의 불상입니다. 모두 하쿠산 산중의 작은 절들에 안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은 메이지시대(1868-1912 년) 초 불교를 배척하는 분위기 속에서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이 구해냈습니다. 이러한 불상은 산에서 아래로 옮겼기에 현재는 통칭 ‘계잔부쓰’(‘산에서 내려온 불상’)라고 불리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사가 지배하던 시대가 끝나고 급속하게 근대화가 개막된 메이지시대(1868-1912 년), 정부는 신도의 국교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도와 불교를 강제로 나누는 신불분리라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신도와 불교는 몇 세기에 걸쳐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교(異敎)’로 여겨진 불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배척의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불교 사원이 없어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불교의 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제에 반항해 불상을 산에서 아래로 옮겨 안전한 장소에 숨긴 현지 사람들 덕분에 계잔부쓰는 구해졌습니다. 무게가 200kg 이나 되는 불상도 몇 개 있었기에 불상을 산에서 아래로 옮기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신앙심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신불분리 정책은 빨리 철회되었기에, 린사이지의

불상은 다시 공개되어 숨기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상

8 지장보살

불상 높이가 79cm 인 이 동상은 원래 하쿠산 정상에 가까운 센자가이케 연못 근처에 있었습니다. 현재의 후쿠시마현을 다스리던 역사상의 인물, 후지와라노 히데히라(?-1187 년) 는 하쿠산 신앙의 신자였습니다. 이 불상은 1183 년에 후지와라노 히데히라가 현지에서 주조했다고 전해지는 금동 불상으로, 당시의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7 십일면 관세음보살

불상 높이가 71cm 인 이 불상은 각 부분을 주조해서 만든 것으로 원래는 하쿠산의 최고봉에 가까운 무로도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헤이안 시대(794-1185 년) 후기에는 목제 거꾸집을 활용한 구리 주조가 행해졌습니다. 이 관음상은 해당 기법을 이용한 몇 안 되는 희귀한 작품으로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6 아미타여래

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동제 아미타여래상은 원래 하쿠산 세 봉우리 중 하나인 해발 2,684m 의 오난지미네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불상의 뒤에는 1822 년 3 월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5 십일면 관세음보살

옛날에는 하쿠산의 최고 지점인 해발 2,702m 의 고젠가미네에 안치되어 있던 이 관음보살상은 1824 년에 후쿠이현의 헤이센지에서 주조되었습니다. 이 불상은 원래 놓여 있던 다이초 대사(682-767 년) 작품인 목조 불상을 대체한 것입니다. 무게가 207kg, 불상 높이가 109cm 인 십일면 관세음보살상은 이 높이의 산에 안치된 불상 중에서는 사상 최대급입니다.

4 성관세음보살

이 보살상은 원래 하쿠산 세 봉우리 중 하나인 뱃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불상 높이가 62.7cm 인 이 불상은 원래 오난지미네에 있던 아미타여래상과 같은 제작자가 주조한 것입니다.

3 약사여래

이 약사여래상은 근처 이치노세 온천의 원천이 있으며, 에도시대(1603-1868 년) 초기부터 신앙의 장소였던 야쿠시도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불상 높이가 36cm 인 이 목조 약사여래상은 1712 년에 처음으로 하쿠산에 모셔졌습니다.

2 석가여래

이 목조 석가여래상은 717 년에 처음으로 하쿠산에 오른 승려인 다이초 대사(682-767 년) 의 작품이라고 전해지며, 원래는 히노키노슈쿠라는 오래된 등산길의 입구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상의 상반신만 남아 있습니다.

1 다이초 대사 좌상

다이초 대사(682-767 년) 는 현재의 후쿠이현에서 태어났습니다. 14 세부터 하쿠산

신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36 세 때 제자 2 명과 함께 사상 최초로 하쿠산 등정을 달성했습니다. 1611 년에 에치젠 헤이센지에서 조각된 불상 높이가 60.6cm 인 이 목상은 원래 무로도에 있던 것입니다.

<뒤표지>

입장료

일반	400 엔
10 명 이상 단체	350 엔/1 인
중학생이하	200 엔

시간

매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1 월 ~ 3 월)/ 오전 8 시부터 오후 4 시까지 (4 월 ~ 12 월)

휴관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수요일에 휴관)

린사이지

이시카와현 하쿠산시 시라미네 이 68

전화번호 : (076)259-2041